

1월 농업계 정세 전망과 과제

1. WTO 홍콩 각료회의 종료...2006년 4월말까지 협상 세부원칙 확정, 6월말까지 각국 이행 계획서 작성 완료 방침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

○ 제6차 WTO 각료회의가 12월 18일 폐막되었다. WTO 전체 회원국들은 2006년 4월 30일까지 세부 원칙(모델리티)을 마련하여, 2006년 7월 31일까지 국별이행계획서(C/S)를 제출하는 일정에 합의하고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 농업협상의 중요한 합의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가. 시장접근분야(관세감축)

- 관세감축을 위한 구간수는 4개로 설정
- 그러나 민감품목 대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필요
- 개도국은 적절한 수의 특별품목(SP)을 지정할 수 있고, 특별긴급수입제한(SSM)을 수입 가격 하락 및 물량급증의 경우에 모두 발동 가능

나. 국내보조분야

- 감축대상보조(AMS),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 구간수를 3개로 합의(EU는 최상위, 미국·일본이 그 다음 순위, 우리나라는 최하위 그룹에 배정될 것으로 전망)
- AMS가 없는 개도국은 최소허용보조(de-minimis) 감축을 면제하고, 개도국을 위한 허용보조(Green Box) 요건 완화

다. 수출경쟁분야

- 수출보조 철폐시한을 2013년으로 확정
- 식량원조,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무역왜곡적 관행을 규율하는 세부원칙을 2006년 4월 30일까지 마련
- 개도국 수출물류비 등의 수출보조는 선진국 수출보조 완전철폐 이후 5년간 허용
-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타 수입허용 관련, 선진국은 원칙적으로 2008년까지 최빈개도국산 품목중 최소 97%까지 무관세·무쿼타 수입을 허용하고, 개도국은 자발성에 근거하여 신축적으로 무관세·무쿼타 수입 허용 가능

○ 이번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한농연을 포함한 한국 농민투쟁단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개도국특별품목(SP)과 개도국 특별긴급수입제한(SSM)을 인정받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관세상한 설정이나 구간별 관세감축 계획 등에 있어 향후 우리나라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한농연은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160여명의 홍콩 투쟁단을 파견, 효과적이며 강력한 농권수호 투쟁을 전개하여 홍콩 주민과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홍콩 투쟁의 긍정적인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2006년 DDA 협상 등 보다 적극적인 농업통상협상 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 한농연, 2월 13일 농민대항쟁 체제로 돌입...전용철·홍덕표 농민 사인, 경찰 과잉 폭력진압으로 결론

- 전용철 농민과 홍덕표 농민의 사인이 11. 15 전국농민대회에서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 때문인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26일 결론지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발표하고, 경찰 최고책임자인 허준영 경찰청장은 12월 29일 사퇴했으며, 영결식은 31일 치뤄졌다.
- 이같이 농업계 내외부의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정부의 행보가 더욱 바빠지고 있다. 정부는 쌀산업 발전대책과 농업·농촌종합대책 등의 보완책 마련을 농업계에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여야 정치권과 함께 농민단체-국회-정부간 3자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1월말에는 쌀산업 발전대책의 보완책을 발표하여 성난 농심을 추스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가 과연 근본적인 농업희생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적인 제스처로 끝날 것인지 한농연은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 11월 24일 전용철 농민의 사망 직후, 한농연과 주요 농민단체들은 근본적인 농업 희생을 위한 농정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2006년 2월 13일(월) 서울에서 대규모의 농민 대항쟁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를 통해 한농연과 농민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농업 희생의 근본 대책 및 쌀 대란 해소책의 수립·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3. 농협 결산 대의원총회 집중 개최...체계적인 대응활동 요구돼

- 11월 말 농협 예산 대의원총회가 마무리되었고, 1월 중순부터 1월말까지 2005년도 결산 대의원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농연은 9월 30일 협동조합 운동가 교육을 통하여 농협 결산 대의원총회의 대응 방안과 각종 경영지표의 진단 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월간 한농연 12월호와 1월호 지면을 통해 대응 요령을 자세하게 소개할 방침이다.
- 특히 이번 결산 대의원총회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농협 개혁운동의 전기를 마련하여, 향후 농협 개혁운동의 질적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앙연합회에서 제공한 각종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한농연 출신 대의원과 이감사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하여 지역농협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근본적인 개혁 및 발전을 위한 대안을 관철시켜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